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베르 한국온다



‘친한파’ 프랑스 소설가 베르베르(56)가 한국을 찾는다. 출판사 열린책들은 ‘제3인류’의 한국어판 완간을 기념해 12일 베르베르가 내한한

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개미’의 한국어판 출간 20주년을 맞아 방문한 지 3년 만이다. 또1994년 첫 방한 이후 일곱 번째 방문이다.

‘제3인류’ 한국어판 완간 기념... 강연·팬사인회 가져

베르베르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소설을 판매한 작가(지난 3월 교보문고 조사)로 손꼽힌 작가다. 2위 무라카미 하루키, 3위 히가시노 게이고, 4위 기욤 뫼소, 5위 신경숙이었다.

한국 독자가 보이는 애정만큼 베르베르도 발표하는 작품 곳곳에 한국 독자에 대한 애정을 담아 왔다. 작품 속에 비등 있는 인물을 한국인으로 설정한다든지 한국 산 재품을 활용하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제3인류’에도 현대 자동차가 등장하고 한국은 ‘로봇 공학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나온다. 5권과 6권에서는 한국인 고고학자 히파티아 김(한국 이름 김은선)이 새 여주인공으로 등장해 활약한다.

베르베르는 오는 20일 출국하기 전까지 프로야구 시구를 비롯, 대중 강연과 두 차

례의 팬 사인회를 개최한다.

눈길을 끄는 행사는 ‘인공지능 이후의 예술 창작’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이다. 지난 3월 열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열린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베르베르는 ‘제3인류’에서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를 일곱 가지 미래의 길 중 한 방향으로 썼다.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두 시간에 걸쳐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4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프로 야구 시구’도 한다. 15일 오후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16 타이거뱅크 KBO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 시구자로 등장한다.

14일과 15일 교보문고 광화문점과 반디엔투시스 신세계강남점에서 팬 사인회가 열린다. /이성주 기자

화제의 책

아직 다 보지 못한 세상이 많았다
아소가 펠로우 명성진의 감동 휴먼 에세이

‘위기의 아이들’과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차이는?

“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한없이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부터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공동체에 잘 적응하며 생활했다. 얼굴빛도 아주 좋아졌다. 무엇이 아이의 마음 문을 열게 했을까? 자신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한 사람이 위태롭던 아이의 마음을 열었다.” (44p)

가출한 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시작으로 위기 청소년 공동체가 된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저자 명성지 대표는 청소년, 교육자, 부모들의 멘토로 알려져있다.

아이들의 문제의 원인인 상처와 아픔에 주목하고, 음악과 여행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지원해 왔다.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 형성되던 초기에 내가 했던 일은, 밤새 함께 리면을 끓여 먹으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57p)

위기의 아이들과 치열하게 소통한 그는 법조계, 학계, 교육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청소년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여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 전반까지 변화시키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위기의 아이들이 세상을 품은 아이들로 변화되는 ‘눈부신 성장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부모와 선생님들조차 포기했던 아이들이 극적으로 회복되어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다. ‘위기와 문제’, 그리고 ‘성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

아이들과의 최선의 소통법을 알고 싶은 부모와 교사, 방황하는 자녀의 꿈을 찾는 여정을 지원하고픈 모든 부모들, 교육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될 희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272쪽, 1만4800원, 스마트북스. /이성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군산예술의전당, 공연 공모 선정 국비지원 받아

‘세빌리아의 이발사’ · ‘당신을 위한 노래 with 김동규’

군산예술의전당은 국립공모사업으로 국립오페라단의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당신을 위한 노래 with 김동규’를 유치했다.

예술의전당은 올해 총 9개 작품 2억 6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오는 6월 공연되는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는 국립오페라단의 대표작으로 전막공연의 완성도에 준하는 갈라콘서트로써 45명의 오케스트라와 10여명의 성악가

들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과 연기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7월에 진행되는 ‘당신을 위한 노래 with 김동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비사업으로 바리톤 김동규 교수와 밴드 20여명이 함께 출연해 뮤지컬 넘버, 가요, 가곡 등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쉽고 편안한 세미클래식 향

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클래식 공연은 100%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공연인 만큼 관람료는 무료로 진행되며, 작품별 30%이상씩 소의 계층을 초대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예술의전당은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당신을 위한 노래 with 김동규 작품 외 올해 국비사업으로 국립창극단의 배비장전, 양방언Evolution2016, 양모양모 콘서트, 굿모닝 광대군, 뮤지컬 빨래 등이 선정됐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6일 젠더문화축제 개최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여성이 행복할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계획 추진안을 10일 발표했다.

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전북여성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으로 여성능력개발 확대, 일·가정 양립지원, 가족·복지증진을 전략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사업은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여성가족부지원 직업교육훈련 운영, 전기전자·LED반도체·성장동력산업 직업교육 미니취업박람회, 청년여성 취·창업 지원 협업 업무 협약, 친화기업 CEO·인사담당자 네트워크 강화사업, 전북여성 문화공간 ‘소소담’, 지역사회연계 맞춤형 교육, 제 6회 전북젠더문화축제, 여성인재 아카데미 등 총9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 중 전북젠더문화축제는 세대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평등문화조성과 다양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마련된 행사다.

행사는 ‘다섯 번째의 봄, 새로운 꽃이 핀다.’는 주제로 26일 오전 9시 30분~5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본관 및 별관에서 진행된다.



전북젠더문화축제 포스터.

프로그램으로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특강과 포럼, 인권향상 인형극 및 워킹맘, 워킹대디 도란도란 이야기 등이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254-3610 /정해은 기자



바늘방석, 반질고리, 안경집.

모자와 컵받침.

전통문화전당, 한국·프랑스 자수 교류전

15일까지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은 15일까지 전당 3층 온브랜드관에서 ‘한국·프랑스 자수 교류전-생활 속의 자수 소품전’을 연다.

이번 한·프 자수 교류전은 동·서양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시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자수를 대표한 전경례씨는 세밀하게 자수가 바느질된 골무집 위에 8각의 유리를 얹어 만든 ‘꽃잎이 착상’을 비롯해 바늘방석, 반질고리, 안경집, 보자기, 사방탁자와 배게, 자수부채, 화조병풍 등을 출품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자수를 대표한 강이소 /정해은 기자

씨는 자수가 놓아진 커튼에는 ‘울엄마’, ‘집사꽃 피다’, 모자와 컵받침에는 ‘소통’이라는 제목을 붙여 작품을 내놓았다. 작품 중 ‘필레꽃’이 수놓아진 도형베개, 털실베개, 수건, 실내화 등은 이국적 자수의 유행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이 전시를 통해 양국의 전통자수 기법, 특징, 쓰임새를 비교 관람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자수는 바느질이 섬세하고, 민족 고유의 색인 황(黃), 청(靑), 백(白), 적(赤), 흑(黑) 위주의 오방색 컬러가 주를 이루는 반면, 프랑스 자수는 표현 방법이 자유롭고 다양하며 화려한 색이 많다는 게 관련 종사자들의 분석이다. /정해은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slab.com/ (2016년 5월 11일)

<p>▷쥐띠 46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배풀어라. 6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은 늦추지 말고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84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른다.</p>	<p>▷소띠 49년생: 매사 큰 울적임은 삼가라. 61년생: 분주하기는 하나 분주함 만큼 이득을 얻기는 어렵다. 73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하나 힘을 합치면 가능한 일이다. 85년생: 뜻밖의 귀인이 도움을 주는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외부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운이다. 62년생: 가물에 시달린다 단비를 만난 격. 74년생: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여행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86년생: 욕심을 부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토끼띠 51년생: 힘든 상황에 놓였던 사람은 한숨 돌릴 수 있겠다. 63년생: 도처에 귀인 있으니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된다. 75년생: 모질고 귀를 합들게 하는 소리가 도움이 되는 운이니 주의 깊게 들어보라. 87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p>
<p>▷용띠 52년생: 동기간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쉽게 이룰 수 있다. 64년생: 남자는 여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76년생: 들을 얻었으면 하나를 보내야 하는 운. 88년생: 욕심을 부리면 화가 발생하니 마음을 비워라.</p>	<p>▷뱀띠 53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65년생: 예상보다 상황이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망하지 마라. 77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하는 운. 89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가는 운이다.</p>	<p>▷말띠 54년생: 주변에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생기는 운이다. 66년생: 지나치게 나서면 구설수가 따르게 되는 운. 78년생: 주변 상황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운이다. 90년생: 억의 없이 행동한 일에 관련한 상황이 발생하는 운이다. 나서지 마라.</p>	<p>▷양띠 55년생: 내부에서는 결단이 필요한 때다. 67년생: 정신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는 운이니 함께하면 많은 것을 하려고하지 마라. 79년생: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 있는 운이니 주의하라. 91년생: 변동하면 험통하고 좋지이니 망설이지 마라.</p>
<p>▷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는 때. 68년생: 금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80년생: 언행에 삼가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라. 92년생: 지나친 과민성은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를 야기하니 조심하라.</p>	<p>▷닭띠 57년생: 봄에 수확을 하려는 격이니 때를 기다려라. 69년생: 지금 현재는 답답하고 힘드니 차츰 운이 좋아질 것이다. 81년생: 변화에 무리하지 말고 잘 적응해 나가라. 93년생: 매사에 순리대로 진행하면 편안해질 것이다.</p>	<p>▷개띠 46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다. 58년생: 여자와 상대하면 반쪽이 많다. 70년생: 시비가 따르니 불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82년생: 좋지 않은 일이 몰려 다가오는 운이다. 큰 것을 취하면 화가 따르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니 주의하라. 59년생: 움직이면 이득이 있다. 71년생: 성급하게 행동하다가는 일이 틀어질 수 있다. 83년생: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에 움직여야 한다.</p>